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 미 향(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홍 달 아 기(원광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태도와 의사소통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부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결혼이주여성이 응답하기 용이하도록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작성하였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방문지도사들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국어로 된 설문지와 한국어로 된 설문지로 직접 면접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은 총 200부 중 최종 18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척도는 문화적응태도는 장은정(2007), 강득자(2008)가 사용한 문화적응태도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의사소통은 Snyder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 다차원척도 설문지를 권정혜, 채규만(1999)의 결혼생활 만족도(K-MSI) 설문 중 의사소통관련 설문을 사용하였다. 부부적응에 관한 척도는 Spanier(1976)의 32문항의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를 기본으로 Busby 등(1995)이 DAS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4문항의 RDAS 척도를 개발 사용한 것을 최성일(2004)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RDA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신뢰도 계수,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규성과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자료는 비모수(Kruskal-Wallis)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태도를 요인분석 결과 다문화수용태도는 결혼기간, 거주지역, 주관적 경제수준, 한국어 실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문화전달태도는 소극적인 태도의 점수가 높았고, 다문화 수용태도는 적극적인 태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거주지역과 주관적 경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의미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적응을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응집도의 세 영역으로 살펴본 결과 부부일치도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고, 부부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넷째, 문화적응태도, 의사소통, 부부적응 간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이고 의사소통수준이 높을수록 요구사항이 많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부일치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부부적응을 위해 한 가족으로서 어떠한 배려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